

M-Tree 6기 장학생

나무



느티나무

신윤아 미디어학부 20

느티나무는 오랜 시간 자라며 많은 이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M-Tree 장학금은 당장의 현실 속에서 내일로 기약했던 목표를 오늘로 가져올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든든한 그늘 덕분에, 교환학생 시절 제작했던 영상 프로젝트를 완주하고, 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라며 아름다운 수형을 만들어내는 강인한 느티나무처럼, 저 또한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단단하게 성장하겠습니다.

고목나무

남지윤 미디어학부 21

M-Tree 장학금은 더 많은 체험과 넓은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발전하고자 하는 제 가치관을 응원해준 고마운 장학금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의 도움으로 현재 네덜란드에서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우며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고목나무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

김정민 미디어학부 21

커다란 버드나무를 보면 오래 버티고 섰던 고목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자라서 금방 커진다고 합니다. 미디어학부에서의 가르침과 M-Tree 장학금을 기반으로 저의 순수함을 전달하는 동화책 출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내면의 깊이감을 빠르게 채워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나뭇가리는 버들잎처럼 선순환이 되어 서로 편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참나무

정효재 미디어학부 21

강직한 참나무는 용기와 진리의 상징입니다. M-Tree 장학금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배움을 거듭하고자 하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학문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머지 않아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후에는 학부연구생 활동을 하면서 M-Tree 장학금이 응원해준 제 꿈을 더욱 구체화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리를 탐구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벚꽃나무

권준서 미디어학부 18

미디어학부를 다니며 배운 것들을 하나의 결과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M-tree 장학금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벚꽃나무는 평소에 푸른 빛으로 서있다가 봄이 오면 하얀 꽃을 피웁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만드는 마지막 꽃을 M-tree 덕분에 환하게 피울 수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더 큰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의 '나'는 나만의 나무에 열린 결실 즉, 열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M-Tree 7기 장학생<나我木>입니다.

M-Tree 장학금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시간을 '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빚대었습니다.

